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 주일오전설교 | 주께서 심판자로 재림하심

[살후 1:5]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참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며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표이었다. 성도의 바른 신앙고백과 의롭고 선한 삶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일차적 증거이지만, 그가 핍박과 환난을 참고 견디는 것은 그것들보다도 더 확실하고 귀한 증거가 된다.

[6-9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불로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서는 공의의 심판자이시다(롬 2:6-8). 그는 성도들을 학대한 자들에게 고통으로 갚으시고 학대받은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재림하시는 예수께서는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시며(막 16:19; 눅 24:51) 거기로부터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주 예수의 재림을 나타내는 두 단어는 ‘강림’(파루시아)(살전 4:16)과 ‘나타나심’(아포칼립시스)인데, 본절에서는 ‘나타나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는 말은 ‘불로 형벌을 주시리라’(KJV)는 어귀로 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주의 재림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받는 날이다. 우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므로 그 외의 죄들을 짓는다. 그

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다(잠 9:10).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고전 1:23; 15:3). 그러나 이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벌을 받을 것이다(요 3:16, 36).

재림하시는 주 예수께서는 악인들에게 불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사도 베드로도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말하였다(벧후 3:6-7).

바울은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얼굴과 심판의 능력과 영광으로 악인들을 향하실 것이며,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물리침을 받고 성도들을 부활시킬 그의 힘의 영광을 경험치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 곧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지옥은 악인들을 위해 예비된 장소이다. 마태복음 25:41, 46,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永罰)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10절] 그 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자들 가운데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시는 날에 그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찬송할 것이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기이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믿었던(벧전 1:8) 모든 신자들은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실제로 볼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며, 더욱이, 재림의 주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를 믿었다는 뜻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믿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다(엡 2:8-9).

**[11-12절]** 이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리므로’라는 말은 앞의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전체에 관계된다고 본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공의의 심판이 되어 그런 자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믿는 성도들에게 재림의 주님을 영광과 찬송과 놀라움 가운데 영접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주의 재림이 이런 일들을 내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구원의 확실함을 위해 항상 기도하였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은 세 가지이었다. 첫째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하여 성도의 표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고 본다(살전 1:2-4).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믿음의 행위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있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구원받은 자임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일을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했다. ‘모든 선을 기뻐함’이라는 원어(φίλων 유도키안 아가도쉬네스)는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의미하든지(KJV), ‘선한 것에 대한 [그들의] 모든 소원’(NASB)을 의미할 것이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그의 뜻을 가리킬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시작하신 이 구원을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보면, 이 말은 선한 것에 대한 그들의 모든 소원을 가리키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엡 2:10; 딤후 2:14).

‘믿음의 일’이란 믿음의 행위를 가리킨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가 주신 믿음과 구원을 능력으로 온전케 하실 것이다. 우리는 선한 것에 대한 모든 소원과 믿음의 행위를 온전케 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힘 주심으로 가능하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들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기도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큰 구원이며(히 2:3) 완전한 구원이며(히 10:14) 영광스러운 구원이다(롬 8:30).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또한 성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의 구원은 영광스럽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의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잘 준비해야 한다. 바른 신앙고백과 순종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이지만,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바른 믿음을 지키며 참고 견디는 것은 그것들보다 더 확실하고 귀한 표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 사역을 믿고 성경 교훈대로 바르게 선하게 살아야 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잘 참고 견디어야 한다.

둘째로, 주께서 재림하신 후에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벌이 있을 것이다. 재림의 주께서는 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불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벌, 곧 지옥 불못의 벌을 받을 것

이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과 지옥 불못의 벌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셋째로 성도들에게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며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경의 교훈대로 의롭고 선하게 사는 자이다. 재림의 주께서는 성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주의 재림의 날에 그들은 영광스럽고 완전하게 변화될 것이다.

### 주일오후설교 새 예루살렘 성의 복됨

[계 22:1-2]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양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에 대해 증거한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성의 복됨에 대해 증거한다.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양의 신부로 묘사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21:9-10,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렇다면 그 성은 문자적인 성이 아니고 어린양의 신부 즉 신약교회를 상징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 성의 영광, 크기, 그 거주민들에 대한 양장의 묘사나 그 성의 복됨에 대한 본장의 묘사가 그러하다고 본다.

특히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그 강은 수정같이 맑은 강이다. 그것은 더러운 쓰레기와 오물과 오폐수로 더럽혀져서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이 세상의 강들과는 다르다. 그것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강물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주는 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강물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에스겔 47장에 자세히 묘사된 회복된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과 비슷하다. 만국을 회복시키는 강물로 묘사된 그 강은 세계 복음화를 보인 것이라고 본다.

본문의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나타낸다. 주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요 4:14). 또 요한복음 7:37-39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말하였다.

그 생명수의 강은 길 가운데로 흐르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힐 것이다. 그것들은 천국 백성에게 다양하고 풍성하게 생명력을 복돋울 것이다. 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에 생명력과 활기를 주는 데 사용될 것이다. 에스겔 47장의 이스라엘 회복의 환상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다.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썩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천국에는 생명의 쇠약함과 쇠잔함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병도 없고 병원도 없을 것이다. 천국은 항상 건강과 활기가 넘치는 곳일 것이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3-5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저주받은 세상이다. 창세기 3:17-18,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으로 땅의 저주는 거두어졌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성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어린양을 섬기며 그에게 예배드리고 그의 얼굴을 뵈우고 그와 교제할 것이다. 또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소속을 나타낸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또 거기에는 밤이나 어두움이 없고 등불이나 전깃불이나 햇빛이 쓸데없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온 땅과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비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 같은 신분과 특권을 가질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신약 성도들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다(벧전 2:9). 천국은 신정(神政) 국가이지만, 또한 매우 민주적인 나라일 것이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사람은 다시는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6-7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 곧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다고 증거되었다. 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질 나라이다. 또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은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신’ 것이라고 증거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며 요한계시록도 그 한 부분이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주의 재림 전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사건들을 예언하며 기록한 것이다.

또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3도 말씀한 내용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대환난과 주 예수의 재림과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이다. 주의 재림 직전에 천 재지변들이 있고 세계적 전쟁들이 있고 적그리스도 즉 세상을 지배하는 무서운 독재국가나 통치자와, 거짓 선지자 즉 배교한 세계적 교회나 종교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순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패하여 지옥 불못에 던지울 것이며 사탄도 지옥 불못에 던지울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지막 대환난 중에도 참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 재림과 천국 소망을 든든히 붙들어야 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주의 교훈의 요지이다. 우리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장차 복된 새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은 영화된 교

회이다. 우리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통해 풍성한 영생의 생명을 누릴 것이며 다시는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뵈올 것이다. 또 특별히 우리는 천국에서 왕 같은 신분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법을 순종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말씀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성경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장차 극심한 대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시대가 올 것이지만, 우리는 불신앙과 배교와 음란과 온갖 죄악에 물들거나 타협하지 말고 속죄 신앙과 천국 소망 가지고 끝까지 참고 성경의 교훈대로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 수요일 설교 시온의 회복

[사 4:1-6]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 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 . .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본문은 메시아의 오실 것을 예언하였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메시아께서 오셨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사도 바울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고 고백하였다(딤후 1:15).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그를 믿고 의지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겨두신 자들이 있고 그들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그 날에 주께서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고린도전서 1: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케 하심을 감사해야 한다.

셋째로, 환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주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마 28:20).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하실 것이다. 시편 46: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한다.